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정관 개정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후 2시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함께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가 8일(금) 오후에 학교에서 있습니다.
- 김원준군(김일호 흥정길)과 박솔찬양의 결혼식이 9일(토) 오후 2시에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있습니다.(원주시 반곡동 동부순환로 200)
- 공동체에 독일 청년 두 사람(Julian. Ella)이 방문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8 호
2021년 10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코로나 속 하나됨의 고백

동남아시아에는 인구 570만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덴마크나 핀란드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고 강한 공권력으로 통제되고 있는 도시국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인구의 80% 이상이 2번의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세계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난 8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낸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20명 이하였던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나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시를 다시 봉쇄하거나 가게들의 문을 닫을 계획은 없습니다. 하루 확진자의 숫자는 늘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 보다도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그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도 여러가지 어플과 제도와 많은 의료인력들의 수고로 끝없어 보이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초쯤부터 위드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단절과 외로움에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 회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앱을 개발하여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이 앱을 통해 치료받기 원하는 고객은 작년 대비 10배가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많이 빛나졌습니다. 금방 끝날 거 같았던 코로나는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465만여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고

선교와 섬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집단면역만 이루면 다 끝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는 또 한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처음 맞는 상황에 당황했던 것에서 각 개인과 가정, 학교와 회사, 그리고 각 공동체와 국가가 각자의 방향에 맞게 이 상황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의 유래는 1982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Lima)에 모였던 <세계 교회 협의회(WCC)> 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찬 예식서 <세례, 성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를 내놓으며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나눔한 형제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몇 가지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가는 것을 자제할 것이며, 때에 따라 마스크 착용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재택근무도 더 많아지며 만날 수 있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모임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세계 성찬주일에 코로나가 남긴 하나됨의 고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하나되기 어려운 이때, 하나될 수 없었던 이 때,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가 남긴 것들을 바라보며 점차 하나되기 위하여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 말씀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00편

제목 : 선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93 415 249 393

1-2 온 땅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거라

해석: 하나님께 가는 것은 기쁜 것이다. -> 하나님을 삶의 가운데로 초청.

적용: 하나님께 기뻐하며 찾아가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자.

3-4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양하여라.

해석: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아는 이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즐거움의 찬양을 해야 한다.

적용: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즐거워하며) 교회(모임)로 가자.

5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한다.

적용: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변하지 않으심을 굳게 믿자.

기독교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의 종교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나도 다른 곳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다.

공동번역성경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맨 끝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밝혀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 즉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진리로 요약된다. 창조의 진리와 재림의 약속과 구원의 진리이다. 이 세 기둥과 같은 진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자 으뜸은 구원의 진리이다. 구원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창조와 재림이 진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 구원, 재림의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신학자는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었고 재림과 함께 시간은 끝난다고 본다. 그리스도는 시간의 중심이면서 역사의 중심이기도 하다.(중략)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언제나 미래 지향적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교훈은 다가올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로 채워져 있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는 기대와 희망의 역사이다.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떠나가셨다. 그 뒤부터는 그가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 시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약 이후의 기독교 정신이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남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인도 사회는 역사의식과 시간관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후진사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동양인들은 전통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긴 나머지 과거 지향적이어서 발전이 늦어졌다고 본다.

이에 비하면 서구사회는 강한 역사의식과 일회적인 시간관념 때문에 미래 지향성이 강했고 오늘날의 세계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의 유산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회의 역사적인 변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종교와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택이다.

김형석.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중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95 : 6-7
2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b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7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디모데후서 3 : 14 - 4 : 15
200

설교자
사랑방

“ 성경,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0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경,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10월은 개혁의 달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성경 안에 머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후임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대는 ...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3:14-15> “나는 ...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4-1:2>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은 디모데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안에 머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바울은 본문의 앞에서, 불신의 세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딤후3:1-5> 본문의 뒤에서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 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딤후4:3-5> 즉, 불신의 세대가 오면 선교가 어렵고 핍박을 받을 것이며,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면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이 성경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법칙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안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근거로 행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예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95:6-7>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보다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한 주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고구마를 캐고 교장선생님 댁에서 차를 마시고 생일잔치를 하고 햇빛을 받아 형광색으로 빛나는 논둑을 따라 산책을 하고 길도 없는 숲을 헤치며 밤을 찾아 주웠습니다. 그 사이사이 블록으로 탈 것을 만들고 병원, 가게, 집 등을 만들어 역할놀이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마음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화해와 중재를 익혀갑니다.

다섯 살 꼬끼리반 친구들이 아침부터 자기들끼리 역할놀이를 시작합니다. 오양~ 기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주 앉은 니이가 살짝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입니다. 저쪽에 떨어져있던 두 꾸러기가 다가옵니다. "울면서 얘기하니 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기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줄어들더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는지 지켜보려 조금 떨어져 있었더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이 얘기가 끝나니 니이가 얘기를 하고 넷이 얘기를 나누더니 니이와 기이가 서로 하하하 웃으며 미안하다 하고는 다시 놀이를 이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날은 선생님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달래줄 땐 조금 더 길게 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물으면 당혹스러움에 섭섭함과 뼈짐까지 얼굴과 몸짓으로 보여주며 한 30분은 말을 안했을 텐데, 자기들끼리 직접 얘기하더니 훨씬 가볍게 빠르게 해결하고 계속 놀입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린이학교에서는 이번 금요일에 고구마 캐기를 했습니다. 먼저 검은 형겍과 비닐을 걷어내고 전세계 정원관리인들의 애호품인 호미를 듭니다. 전부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생각보다 고구마들이 부끄러운지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큰 삽으로 땅을 퍼 올려주면 까꿍~하고 고구마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

배움과 가르침

다. 평소에 밭일을 안하던 아이들이니 어찌 할바를 몰라 당황하는 모습인데 이제 조금 손에 익으니 고구마를 어떻게 캐야할지 알게 됩니다. "손에 흙이 묻어서요"하며 처음에는 엄지와 집게만 사용하던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흙손을 만듭니다. 물론 고구마를 기대했는데 대신 나오는 지렁이와 지네, 벌레들 때문에 짹~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면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벌레 처리 전문 아이들이 와 해결합니다. 땅에서 나온 고구마들을 담아 교무실 앞으로 나르고 선생님들이 각자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 담아주십니다. 이제 집에 가져가 즐겁게 먹을 일이 기대가 됩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청명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쌀쌀해지는 것도 함께 체감되며 멋쟁이들의 복장도 조금씩 길고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반팔반바지로 청춘을 뽐내는 패션 또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축구를 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며 더욱 그런 듯합니다.

수요일에는 독일에서 울리안, 엘라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당분간 함께 지낼 예정으로 오셨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독일 선생님들 근처에 있는 선배들에게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말해?'라는 말들이 오가는 모습을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보다 더 영어 열풍이 불면서 영어 선생님들은 큰 기쁨을 누리는 중입니다. 영화관람, 축구, 탁구, 식사, 간식과 대화 시간 등 여러 일정에 함께 참여하며 기대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에서 올림픽의 이모저모들을 알아보며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부터 특징까지 양질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보며, 멋쟁이들의 전달 능력이 참 좋다는 감상을 품었습니다. 열린수업시간에는 멋쟁이 풋살 불꽃리그 2차전을 가졌습니다. 게임 종료 2분을 남겨두고 골이 들어가는 등의 팽팽한 명승부가 이어졌고, 멋쟁이들이 마이크를 잡은 중계 캐스터는 입에 불을 뿜었습니다. 금요일의 아쉬운 이별을 끝으로, 다음번 등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등교합니다. 그 유래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Guten Tag!

독일에서는 인사말로 Guten Tag(구텐 탁)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공동체에 손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인 남녀로,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멋쟁이학교의 한 선생님을 통해 인연이 닿게 되었고, 꼭 방문하고 싶다는 열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입국 후 2주간의 격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사랑방공동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간식을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멋쟁이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하하호호 즐겁게 앉아있었는데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이목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그릇이 깨지는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학생들이 몰려와 겹겹이 둘러쌌고, 몇몇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짹짹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멋쟁이, 말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멋쟁이 등으로 주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커다란 변화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멋쟁이들도 그들(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서로 대화해 알아낸 정보들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영어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질문 한 마디를 해보기 위해 책을 뒤적이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만나서 반갑다는 그 인사 한마디, 그것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다들 가슴속으로 심장을 조여드는 감각과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교사 중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었고,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관과 아주 가까운 곳에 손님의 숙소가 마련되었기에 좀 더 자주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마트로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되도 않는 영어로 이것저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쌈을 싸먹는 방법, 차로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 등)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 당연했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신뢰속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리안, 엘라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때로 이 시기를 기억하길 소망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에스겔 33:11-12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화산폭발 피해자를 위한 기도>

28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 팔마섬의 콤브레 비에호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의 활동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폭발이 멈췄다고 선언하기엔 이르다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은 바닷물과 용암이 만나면서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하므로 주민들에게 당분간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산이 진정되고 복구가 잘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공동체를 위한 기도>

1. 게스트하우스 건축(120평)을 위해,

2.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 건축(100만불 예산 중 절반이 더 채워지도록)을 위해,

3. 민들레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해,

4. 베이커리 담당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환절기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시기를

2. 새롭게 방문한 외국인 청년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주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주중에는 비까지 내려서, 기온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올리안과 엘라 두 청년이 지난 수요일부터 사랑방공동체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약 두 달간 사랑방에 머물면서 공동체생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머무는 기간 동안 멋쟁이학교에서 수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공동체와 학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지면서, 방치되었던 자전거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주변이 정돈되어 보기에 좋습니다. 공동체 밭에서는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어린이와 멋쟁이들이 함께 추수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수확이 되어 그간 애쓴 손길들에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 정재훈 목사 >